

한국 어린이 성경 보조 자료 현황과 과제

-The Amazing Bible Fact Book for Kids를 중심으로-

양재훈*

1. 들어가는 말

빌립은 일어나서 가다가, 마침 에티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다. [...] 빌립이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지금 읽으시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가 대답하기를 “나를 지도하여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올라와서 자기 곁에 앉기를 빌립에게 청하였다. (『새번역』 행 8:27-31)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언급한 성경에 대한 구절(딤후 3:15-17)은 교회 안에서 성경 교육의 중요성을 말할 때 거의 빠지지 않고 인용되는 말씀이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고, 바울이 말하듯이 이 성경은 어린이를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키워내는 데 가장 좋은 교재이다. 그런데 한국 교회 학교 아동부 어린이들 가운데 ‘스스로’ 성경을 읽는/읽을 수 있는 어린이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교회에서는 어른들에게 성경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성경통독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지만, 어린이들에게는 직접 성경 말씀을 읽도록 얼마나 독려하는지 의문이다. 가정에서도 학원과 학교 공부를 위해 잔소리하는 부모는 많지만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읽도록’ 등 떠미는 부모는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학교 수업만 중시하고 신앙 교육은 등한시한다면 부모들을 마냥 탓할 수만은 없다.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등을 떠밀지도 않지만, 설령 등을 떠민다 하더라도 어린이들이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 가운데 어린이를 위한 성경이 있다고 선포 자신 있게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어린이 성경’들은 표지만 어린이 성경일 뿐 어린이들이 읽을 만한 성경이라고 말하기 힘들다.) 따라서 어린이들이 읽어야 하는/읽는 성경은 어른들이 읽는 성경이고, 이

* 협성대학교 교수, 신약학.

1) 박창해, “어린이를 위한 우리말 성경 번역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몇 가지 문제점”, 『성경원문연구』 6 (2000), 155.
2) 아가페출판사에서 어린이를 위해 『쉬운성경』(서울: 아가페출판사, 2004)을 출간하였다. 성

러한 성경이 어린이들에게 쉽게 다가올 리는 만무하다. 김희자의 설문 연구 결과가 보여주듯이, 어린이들이 성경을 읽으려 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는 성경이 독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는 것 때문이다.³⁾ 이것은 한국 어린이들이 성경을 ‘스스로’ 읽는 데 무엇이 가장 큰 걸림돌인지를 잘 보여준다.

대한성서공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파악하고 어린이들을 위한 성경 번역을 연구하였고⁴⁾ 대한성서공회 홈페이지에서도 어린이들의 성경 교육을 위한 사이버 공간을 마련하였다.⁵⁾ 그러나 지금까지 어린이들을 위한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은 찾아보기 힘들고, 현재의 추세를 보건대 이에 대한 관심이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물론 이전에 비해 다양한 번역본들이 출판되고 계속 연구되고 있지만, 어린이들이 ‘스스로’ 읽을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어린이 성경책을 찾아볼 수 없다.⁶⁾

그러나 어린이 성경 제작의 필요성과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루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에 대하여 대한성서공회의 어린이 성

서학자와 목사들, 국어학자와 초등학교 교원들이 함께 작업을 한 이 성경은 “어린이도 읽을 수 있도록 쉽게 번역하는” 원칙으로 “문자 대 문자의 번역이 아닌 의미 전달에 초점을 둔 번역”을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서문). 물론 성경 본문을 살피면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기 위한 노력의 흔적들이 적잖게 보이긴 하다. 그러나 여전히 아동들이 따라잡기에 어려운 어휘나 표현들이 많이 나와서 완성도가 의심스러운 정도이다(예: 보좌, 진정, 사자[使者], 부인하다, 배척하다, 능통하다, 영접하다, 지파, 피조물, 합당한, 적의(敵意), 평강, 환난, 연단, 경건, 진노, 중보, 흥미한, 권세, 화평, 구제, 훈계, 흉배, 전신갑주, 경멸 등).

- 3) “읽기가 어려워져”(27%), “무슨 뜻인지 몰라서”(22%), 그리고 “재미가 없어서”(25%)이다. 또한 어린이들이 바라는 것도 성경이 쉽고(70%) 재밌으면 좋겠다(55%). 김희자, “장기적인 학습을 위한 어린이 성경 번역의 선택성과 배제성”, 『성경원문연구』 6 (2000), 53-80. 비록 이 통계가 전국적이지 않고 시간도 많이 흘렀기에 그 신뢰도가 떨어지기는 하지만, 그 후로도 ‘어린이 성경’이라고 할 만한 성경이 지금까지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이 통계의 결과는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다.
- 4) 이러한 프로젝트는 1999년에 이루어져서 2000년도에 『성경원문연구』 6호에 특집으로 그 연구 결과들이 게재되었다. 임동원, “어린이 성경 번역에 있어서 발췌 본문에 대한 연구”, 『성경원문연구』 6 (2000), 7-27; 손삼권, “성경 읽기의 차원에서 본 어린이 성경 번역”, 『성경원문연구』 6 (2000), 88-104; 손삼권 정리, “어린이 성경의 번역과 편집의 방향”, 『성경원문연구』 6 (2000), 134-147; 김희자, “장기적인 학습을 위한 어린이 성경 번역”, 53-80; 박창해, “어린이를 위한 우리말 성경 번역”, 155-185; 강희천, “아동기의 종교 심리와 성경 이해”, 『성경원문연구』 6 (2000), 28-44; 심정택 외, “지금까지 나온 어린이성경”, 『성경원문연구』 6 (2000), 112-126. 이후에도 어린이들을 위한 성경 번역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무용, “어린이 성경의 문체 정립을 위한 소고”, 『성경원문연구』 11 (2002), 115-133.
- 5) <http://www.bskorea.or.kr/child/default.aspx>. 어린이들을 위한 대한성서공회의 사이버 공간에 대한 비평으로 양재훈, “예술매체를 통한 성서 메시지 전달과 성서번역의 과제 - Siku의 The Manga Bible, NT-Raw를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23 (2008), 167-168을 보라.
- 6) 반면, 어른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관주나 해설을 붙인 성경의 출판은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이에 대한 역사, 평가와 과제에 대해서는 김영봉, “우리의 상황에서 나온 해설 성서가 필요하다”, 『성경원문연구』 9 (2001), 69-78; 민영진, “우리말 해설 성서의 현재와 미래적 과제”, 『성경원문연구』 9 (2001), 7-30을 보라.

경 프로젝트 참여자들은 연구결과를 종합 정리한 글에서 어린이 성경 제작의 어려움을 잘 제시하였다. 이들은 어린이를 위한 성경 자료를 (1) 어린이 성경 (2) 발췌성경 (3) 어린이 성경전서 등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한 후, 어린이들의 독해 능력과 성경 언어의 가독성(readability) 문제, 아동의 종교 심리와 발달 수준의 문제, 어린이가 태생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삶의 경험적 한계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방안들이 여러 문제를 안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예를 들면, 어린이를 배려하여 이야기 식으로 구성하지만, 이로 인해 아동들이 그저 성경 이야기 지식이나 습득하게 되는 문제도 있고, 집필자나 발췌자의 신학적, 문학적 능력과 편향성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⁷⁾

이러한 지적들은 설득력이 있다. 일례로, 우리나라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성경전서는 진정한 의미에서 없지만, 어린이들을 위한 성경 이야기는 상당히 많다. 이점에 대해서는 아래 본론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겠지만, 이러한 것의 문제는 과연 그것을 예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성경전서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는 점이다. 성경의 내용도 선택되었고 전달 방식도 저자(편집자 혹은 번역자)의 (신학적) 세계관에 영향을 받았기에 아동들이 그리스도교 신앙의 표준인 성경 말씀을 순수하고 온전하게 전수받거나 활용하는 데는 적잖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어린이 성경을 둘러싼 이러한 많은 난제들을 안고 있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나마 그 문제를 극복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수단은 성경 보조 자료들이라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접하는 성경 관련 자료들의 현주소를 정리하고 성경 읽기를 돕는 자료 제작을 위한 제언을 한다. 이를 위해 특히 미국성서공회에서 출간한 *The Amazing Bible Fact Book for Kids* (이하 『바이블 팩트북』)를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한국 어린이의 성경 교육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

2. 한국 어린이 성경 자료

한국 어린이들이 성경의 내용을 접하는 도서 자료들로는 성경 동화, 성경 지식 도서, 성경 공부 교재(큐티 자료 포함) 등이 있다. 인터넷 서점에서 어린이 성경으로 자료 검색을 하면 수백 개의 도서들이 나오는데, 이들을 살펴보면 크게 위와 같은 갈래로 좁혀진다. 어린이 큐티집과 성경 공부 교재 등 성경 교육을 위한 자료를 제외하면 성경 동화와 성경 지식 관련 도서로 한정되는데, 성경 동화

7) 손삼권 정리, “어린이 성경의 번역과 편집의 방향”, 135-140.

는 유아, 유년부 학생 대상의 동화와 초등부 학생용 성경 이야기책이 있다.

유아, 유년부 학생용 성경 동화는 주로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일화들을 골라서 그것들을 각색해서 풀어주는 유형이 대부분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삼는 성경 이야기로 대표적인 것은 30권짜리 『우리아이 처음 읽는 하늘빛 성경 동화』 시리즈(문공사)와 62권 구성의 『리틀 성경 동화』 시리즈(한국 톨스토이)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부분의 성경 이야기들이 *Bible Now!* 라든지⁸⁾ 도서출판 겨자씨에서 20권으로 만든 우리아이 첫 성경 시리즈, 성서원에서 시리즈로 출간한 유아용 성경 이야기책처럼⁹⁾ 간략하고 굴곡진 필체의 그림 스타일과 짧은 글로 된 단순한 이야기라면,¹⁰⁾ 이 두 개의 시리즈들은 수준 높은 그림과 일반 그림 동화책과 같은 스타일로 구성되어 있어서 지금도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 또한 눈여겨 볼 것은 스미스의 레고 성경 이야기 시리즈이다.¹¹⁾ 이 책들은 유아나 저학년 어린이들이 흔히 가지고 노는 레고로 그림을 구성하여 아이들이 친근감을 느끼게 하였고, 폭력성과 선정성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등 아동에 대한 섬세한 배려를 하였다.¹²⁾

한편, 초등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경 이야기는 거의 대부분은 만화책이다. 유아, 유년부용 성경 동화가 주로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일화를 중심으로 성경 내용을 전달하는 것에 주안점이 있다면,¹³⁾ 초등부 학생용 성경 이야기책들은 지식전달과 더불어 오락적 성격이 강하다. 또한 아래에서 살펴보겠지만, 성경 내용보다는 지식전달에 보다 중점을 두고 만들어진 종류의 책이 따로 있어서 이 연령대의 독자들을 위한 책은 오락성과 지식 전달이라는 목표가 서로 좀 더 분명히 구분되고 있다.

오락성을 곁들여 성경 이야기 내용 전달에 주안점을 둔 예로 주니어 아가페

8) 『Bible Now! 어린이들에게 들려주는 101가지 성경 이야기』(서울: 대한성서공회, 2005).

9) 엘리야 로벨-놀렌, 『예수님과 아이들』, 박영옥 역 (서울: 성서원, 2000);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서울: 성서원, 2000); 『노아와 방주』(서울: 성서원, 2000); 머프 싱어,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이현주 역 (서울: 성서원, 1999); 콜린, 모이러 맥린, 『우리 아이가 처음 만나는 성경』, 이현주 역 (서울: 성서원, 1999).

10) 양재훈, “성서 번역의 과제”, 162.

11) 브렌든 파월 스미스, 『크리스마스 이야기 - 레고로 만나는 예수 탄생』, 유영소 역 (일산: 도서출판 숲, 2005); 『하나님 처음 지으신 세상 - 레고로 만나는 창세기』(일산: 도서출판 숲, 2005).

12) 양재훈, “기호간 번역과 성서번역 - 문화적 산물을 통한 성서번역의 다양한 방법론 모색”, 『성경원문연구』 24 (2009), 194.

13) 성경의 오락성 보다는 성경 본문의 내용을 심도 있게 이해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전성수, 『헤브루타 그림성경』(서울: 두란노키즈, 2012)가 있다. 이것은 성경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아동과 대화식 토론을 나누도록 유도하는 책으로서, 초등학생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글썩리 출판사에서 65권 시리즈로 제작한 『칸트 키즈 철학동화』 시리즈와 거의 흡사한 포맷으로 이루어져 있다.

에서 출간한 『미술관이 살아 있다』 시리즈를 들 수 있다.¹⁴⁾ 뮤세이온이라는 공동 집필진이 10권으로 구성한 이 시리즈는 미술관에 간 세 명의 주인공 어린이들이 성경 명화 속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성경 이야기 세계로 직접 끼어들어 모험을 하는 방식으로 성경 이야기를 해주는 만화 시리즈이다. 이 책은 많은 어린이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던 만화영화와 도서 시리즈인 『올림포스 가디언』과 옥스퍼드 대학에서 출간한 *Magic Key Adventure* 시리즈와 상당히 유사한 포맷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경 이야기 속으로 직접 들어가는 모험이라는 양식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오락성과 더불어 성경 지식을 전달하는 책이다.

이에 비해 오락성보다 성경 내용 전달에 좀 더 중점을 둔 것도 있는데, 그 좋은 예로는 김신중의 『파워 바이블』 시리즈가 있다.¹⁵⁾ 총 10권으로 구성된 이 책은 『미술관이 살아 있다』 시리즈 종류보다는 훨씬 더 성경 본문 내용 전달에 중점을 둔 성경 만화이다. 이 책은 에띠엔느 달러(Etienne Dahler)의 고전적 성경 만화 *A Biblia*처럼 성경 본문에 충실했지만, 그렇다고 말풍선(speech balloon)에 성경구절을 적어놓는 식의 딱딱하고 융통성 없는 방식과 달리 훨씬 창의적이고 자유롭다. 이 책에서는 오락성 중심의 성경 만화가 범할 수 있는 오류 즉, 성경을 가르치기 위한 도구로 오락성이 도입되었으나 도리어 오락성에 의해 성경의 내용이 뒤로 밀려나는 주객전도의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돋보인다.

이 책은 성경 본문 내용의 정확한 이해와 전달을 위한 노력의 흔적을 곳곳에 남겼다. 예를 들면, “이방인”, “혹세무민” 등 어려운 표현은 각주로 풀어놓았으며, “할례”라는 용어를 설명할 때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의 약속의 증표로 제정된 종교적 의식”¹⁶⁾이라고 서술하여 어린이들 수준에는 난감할 수 있는 용어를 적절하게 표현하였다.¹⁷⁾ 이 책은 “키프로스(구브로)”, “바보(파포스, 키프로스의 수도)”,¹⁸⁾ “버가(베르게)”, “드로아(트로이)” 등과 같이 오늘날 지명과 성서의 지명을 병기하여 이해를 도왔다. 또한 지리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성서 본문의 이해를 잘 도왔다. 예를 들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장면에서 요한마가가 선교 여행에서 이탈하는 것을 해발 천 미터의 험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160킬로미터를 더 가야한다는 지리적 정보가 담긴 장

14) 뮤세이온, 『미술관이 살아 있다』(서울: 주니어 아가페, 2013).

15) 김신중, 『파워 바이블』(서울: 아이세움, 2009).

16) Ibid., 48.

17) “할례”와 같이 난감한 용어는 굳이 번역할 필요 없다는 주장(김희자, “어린이 성경 번역”, 69)과 달리, 이 책의 번역 방식은 회피하지 않으면서도 적절하게 언급하는 좋은 사례가 된다. 물론 이러한 설명은 굳이 “할례”라는 용어에만 국한되는 설명은 아니기에 적절한 설명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점도 있다.

18) 파포스는 키프로스 공화국의 제2의 도시이며, 수도는 파포스가 아니라 니코시아(Nicosia)이다.

면 속에 배치하여서¹⁹⁾ 사도행전 13:13과 15:37-38의 사건에 대한 이해를 간접적으로 돕는다.

이 책에서는 성서학적 논의 사항들을 상당히 신경 쓴 흔적이 보인다. 예를 들면, 이 책은 바울의 2차 전도여행 시점인 사도행전 16장 부분에 이르러서 누가를 등장시키고, 16:17 이후에 누가가 바울 일행과 작별하는 장면을 묘사하며, 20장 내용이 나오는 시점에서 다시 누가를 등장시킨다. 이것은 ‘우리 구절’(we-section, 16:10-17; 20:5-15; 21:1-18; 27:1-28:16)에 대한 여러 설명 가운데 저자인 누가가 여행에 합류해서 1인칭 복수 시점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이라는 가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²⁰⁾ 뿐만 아니라 바울의 갈라디아서 저술 장면을 전도 여행 과정에 포함시켜 그리면서 율법과 믿음 사이의 관계에 대한 갈등을 소개하고,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갈라디아서 49년 저작설을 따른다는 참고 설명도 추가하였다.²¹⁾ 이것은 이 책이 얼마나 세심하게 성서의 본문을 정확하게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는지 잘 보여준다.

김신중의 『과워 바이블』 시리즈가 성경 본문 내용의 정확한 전달에 중점을 둔 것이라면 이양갑의 『예은이와 하랑이의 애니바이블』과 한영희, 남기영의 『만화로 보는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 시리즈는 성서의 본문 내용의 전달보다는 본문의 역사적 지식을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둔 성서 보조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시리즈 모두 예림당에서 제작한 초등학교생들의 대표적 학습만화 *Why?* 시리즈와 거의 똑같은 포맷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이양갑의 책은 과학과 성경 학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으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어느 하나도 제대로 잡지 못하게 되는 어설픈 모습을 보인다.

한영희, 남기영의 책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저자는 “당시 역사적 배경과 시대 상황을 최대한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되 성경의 이해를 돕는 선에서 타협했습니다.”²²⁾라고 밝힘으로써 이 책이 종교 여부를 떠나서 성경이라는 ‘고전’에 대한 교양만화라는 것을 보

19) 김신중, 『과워 바이블』, 29. 아레오바고에 대한 정보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설명한다(99).

20) “우리 구절”에 대한 몇 가지 설명으로, (1) 저자 누가가 그 여행 자리에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견해와 (2) 누가가 바울의 동료가 남긴 메모를 보고 ‘우리’를 ‘그들’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가설, 그리고 (3) 고대에는 항해기의 경우 이런 방식으로 썼으며 누가는 단지 그 양식을 따랐다는 가설 등이 있다. (2)의 경우 누가는 사도행전 다른 곳에서도 자료를 사용하지만 ‘우리’로 바꾸지는 않는다는 점에 있어서 설득력이 떨어지고, (3)의 경우 ‘우리’ 자료 중에도 항해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도 있고, 1인칭이 아닌 3인칭으로 된 항해기 부분도 있기 때문에(e.g. 13:4-5; 14:20-28; 18:18-23)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나마 (1)의 주장이 이 중에서 가장 설득력이 있다. “우리 구절”에 대해서 Joseph A. Fitzmyer, *The Acts of the Apostles*, The Anchor Bible 31 (New York: Doubleday, 1998), 98-103을 보라.

21) 김신중, 『과워 바이블』, 51.

22) 한영희, 남기영, 『만화로 보는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 2 (서울: 포이에마, 2011), 저자 서문.

여준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구약 시대의 전쟁 방식이나 유대의 관용적 표현들, 물건 등 이스라엘 역사 학습을 위한 다양한 배경 정보들을 제공한다.²³⁾ 그러나 지식 제공에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만화그림은 보조적인 역할을 할 뿐이고 설명적 서술이 주를 이룬다. 또한 제단뿔에 대한 설명 등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200), 성경 본문의 이해를 돕는 방향이 마치 역사 교과서처럼 열왕기와 역대기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정리하는 쪽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 본문’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적 지식 제공이 주를 이루지 못하고 잘 정리되어 있지 않은 한계를 지닌다.

한영희, 남기영의 『만화로 보는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 시리즈와 비슷하지만, 이스라엘 역사 학습보다는 어린이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해를 돕거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파라곤 출판사에서 제작한 *Illustrated Family Bible Stories*가 있다.²⁴⁾ 이 책은 성경 지식 전달이 아닌 성경 읽기 보조 교재로서의 역할에 초점을 둔 책이다. 이 책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성경 이야기 중에서 196개를 추려내어 정경 배열 순서대로 진행하여서 성경 이야기책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더 나아가 신, 구약 배경사, 구약과 신약시대의 일상, 성서의 동식물들, 성지, 성지 주변 지역, 성서 인물 소개 등 보조 정보를 다양하게 소개한다.

흥미로운 것은 나중에 살펴보게 될 『바이블 팩트북』에서 사용하는 “Did You Know?” 방식의 팁(tip) 제공하기 형태를 활용한다는 것이다.²⁵⁾ 이 책은 성경의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그때그때 나오는 이야기와 관련이 있는 배경 지식 정보를 각 페이지 옆에 제공한다. 이로써 독자는 독서 중에 생길 수 있는 의문을 즉각적으로 해소하며 해당 페이지의 성경 이야기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에는 성서의 인물이나 동식물 등을 다시 정리하여 한 눈에 볼 수 있게 하였고, 읽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퀴즈들을 제공하여 흥미를 유발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이 책은 『바이블 팩트북』과 유사한 점이 있다.

그러나 이 책의 주된 목적은 성경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보

23) 예를 들면, 물뿔들과 고대 전쟁 방식(77-78), “발을 가리다”라는 표현이 “용변을 보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이유(92), 언약궤와 성막의 모습(128-130);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행동이 갖는 문화적 의미(174) 등.

24) Parragon Books, ed., *Illustrated Family Bible Stories* (Bath: Parragon Books, 2008).

25) 예를 들면, 에덴동산의 위치(17), 노아방주 제작에 쓰인 연장과 고대 시대의 조선(造船)방식(18), 고대시대에서 전쟁포로가 된다는 것의 의미(25), 성서 인물들의 이름과 그 이름의 뜻(28), 곡식(31), 염색(34), 화장(化粧)(36), 이집트의 종교와 문화(38, 44), 가나안 토착 종교(45), 출애굽 루트(45), 가나안 땅의 사자(64), 나실인(65), 제사장 복장(67), 다곤 신(69), 남/북 왕국 왕들의 연대표(71), 와디(77), 마술(78)「이스라엘 가옥 구조(94), 당나귀나 늑대, 사자 등 동물, 바빌로니아 문명(116), 그릇(118), 우물(121), 유목민 장막(22), 고대도시(23), 여행과 무역(23) 등.

들은 말 그대로 곁가지에서 보조적인 역할만을 수행하는 것이기에 그 정보의 깊이에 있어서 한계를 보인다는 아쉬운 점이 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을 스치듯 지나가며 소개하다보니 어설픈 맛보기에 지나지 않으며,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도록 돕는 소개도 하지 않아서 깊은 단계까지 이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주된 목적이 성경 이야기 소개라서 내용 전개가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가며, 따라서 배경적 지식 정보가 산만하게 흩어져 있다. 이것은 궁금한 내용들을 찾아보려고 할 때 쉽게 찾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긴다. 또한 지식 정보 제공이 보조적이다 보니 소홀히 여겨져서 그림과 내용이 서로 어긋나거나 도리어 어린이들로 하여금 정보 내용을 오해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곳곳에서 발견된다.²⁶⁾

성경 본문 이해를 돕는 것보다 성경 이야기 흐름에 더 중점을 두고 지식 정보 제공은 보조적 수단으로 첨가한 파라곤 출판사의 책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경 본문 이해를 돕는 것에 보다 중점을 둔 것으로는 류모세의 “열린다 성경” 시리즈가 있다. 이스라엘 현지 거주자로서 직접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글을 썼다는 점에서 이 책은 상당한 강점이 있다. 원래 성인들을 위한 시리즈였으나, 어린이들을 위해 두 권을 따로 제작하였다.²⁷⁾ 이 책은 어린이들이 성경을 읽을 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배경지식 전달을 위한 책이다. 이 책에서는 이스라엘의 문화, 지리, 기후, 관습 등을 쉽게 서술하고 있다.

류모세의 책은 성서 본문을 고대근동의 문화적 맥락에서 읽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케네스 베일리(Kenneth E. Bailey)의 『시인과 농부』와 서로 유사하다. 그러나 류모세의 시리즈는 대부분이 성인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어린이들을 위한 책은 두 권뿐인데, 그나마 각각 11장과 10장으로 얼마 되지 않으며, 각 장 역시 그다지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담아내지는 못한다. 이 책은 어린이들이 성경을 올바르게 읽을 수 있도록 돕는다는 목적을 갖고 있긴 하지만, 문화적 설명을 성서 해석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적잖은 오류를 보이고 있어서 도리어 자칫 어린이들에게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²⁸⁾

26) 예를 들면, 반석위에 지은 집(마 7:24-27)의 메시지와 사진이 전혀 연결되지 못하는 부분(166); 한센씨병을 소개하는데 엉뚱하게 다리를 다쳐 목발을 짚고 걷는 그림을 제공하는 것(159); 지붕을 뜯고 친구를 내리는 그림(막 2:2-4)이 전혀 성경 본문의 상황이나 이스라엘 가옥 구조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160. 참고. 임미영, “고대 이스라엘 가옥구조 중 $\pi\lambda\alpha\gamma\alpha$ 는 무엇인가?”, 『성경원문연구』 25 [2009], 53-72), 혹은 어떤 식물들을 소개할 때 정확한 그 식물 사진을 제시하지 않고 다른 식물의 그림을 제공하는 경우 등.

27) 류모세, 『어린이를 위한 열린다 성경 1 - 유대 광야에서 예루살렘까지』(서울: 두란노, 2011); 『어린이를 위한 열린다 성경 2 - 감람산에서 단까지』(서울: 두란노, 2012).

28) 류모세의 『열린다 성경 1』에서 예를 들면, 성서적 근거 없이 어린 예수 실종 사건(눅 2:41-52) 배경을 여리고 여행길로 설정하는 것(29, 42-51), 시편 23편을 어린 다윗의 목동시절 저작으로 단정하는 것(73), 아기 예수가 낚인 구유가 순종을 뜻한다고 하는 것(109-110)

류모세의 책들이 성경을 잘못 읽을 수 있는 부분을 몇 가지 골라서 바로잡아주는 목적이 있다면, 성경 배경이 되는 지식 전달만을 목적으로 하는 책들도 있다. 닐 모리스의 『메소포타미아와 성경의 땅』이 그 좋은 예이다.²⁹⁾ 기탄 문명탐험 시리즈로 나온 이 책은 웅진다책에서 번역한 영국 DK출판사의 Eyewitness Guide 시리즈와 매우 흡사하다.³⁰⁾ 이 책들은 성경 이야기 줄거리 전달보다는 성경의 배경 지식이 되는 정보들을 백과사전식으로 엮은 것들로서, 역사뿐만 아니라 사회제도, 가정, 건축, 전쟁, 예술, 문자, 공예품, 식품과 식생활 문화, 종교, 의식, 교통, 무역과 경제, 패션 등 상당히 다양한 주제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성경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당시의 생활상이나 문화들을 상세하게 소개하며, 그 내용의 깊이 또한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주얼 박물관 시리즈의 책들은 성경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정보를 전달 해주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정보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 접착점을 찾기가 어렵다. 즉, 이 책들은 일반적인 고대 근동 세계의 문명을 소개하는 책이기에 그 정보를 성경과 연결하는 것은 어린 독자들이 알아서 해야 할 몫으로 남는데, 그것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다. 닐 모리스의 책의 경우, 제목은 성경의 땅이라고 적혀 있어서 마치 성경을 읽을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책은 “문명탐험” 시리즈의 한 꼭지로 제시된 것이기에 비주얼 박물관과 내용이나 구성 등에서도 큰 차이가 없고, 따라서 비주얼 박물관 시리즈가 안고 있는 문제도 함께 안고 있다.

3. 미국성서공회의 *The Amazing Bible Fact Book for Kids* (『바이블 팩트북』) 분석과 제언

지금까지 우리는 어린이들이 성경 내용을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어린이들을 위한 성경 (보조) 자료들을 각각 성경 본문의 내용 전달에 중점을 두는 것과 성경 본문 이해를 돕는 것으로 크게 분류하였고, 각 유형들이 갖는 장단점들도 간단히 논했다.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에서 출판된 ‘어린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어린이들이 성경을

등 성서적, 신학적으로 오류가 많고 알레고리적이거나 자의적 해석 및 적용이 많다.

29) 닐 모리스, 『메소포타미아와 성경의 땅』, 김근주 역 (서울: 기탄교육, 2011).

30) 조지하트, 『고대 이집트: 비주얼 박물관 49』, 채수홍 역 (과주: 웅진씽크빅, 1993); 앤 피어슨, 『고대 그리스: 비주얼 박물관 50』, 김동광 역 (과주: 웅진씽크빅, 1992); 시몬 제임스, 『고대 로마: 비주얼 박물관 51』, 채수홍 역 (과주: 웅진씽크빅, 1993).

좀 더 바르고 쉽게 이해하고 읽을 수 있도록 돕는 방안으로 최근에 미국성서공회가 출판한 어린이들을 위한 성경 보조 자료 『바이블 팩트북』을 살펴 볼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서 어린이들이 성경 본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돕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자료들이 얼마 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우리는 성경 읽기를 위한 지식 정보 제공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것들로 기탄문명탐험 시리즈나 웅진씽크빅의 비주얼 박물관 시리즈 등이 있지만 이것들이 본디 성경 본문 이해를 돕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에 성경과 연결점을 찾기가 힘들며, 성경 본문 이해를 돕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류모세의 열린다 성경 시리즈의 경우 그 다루는 범위의 한정성과 내용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가장 잘 극복할 수 있는 것이 2011년도에 대한성서공회에서 번역 출간한 레이 프리츠(Ray Pritz)의 『성서 속의 물건들』이다.³¹⁾ 이 책은 독자들이 성경 본문을 읽을 때 올바르게 본문을 읽을 수 있도록 돕는 목적으로 제작된 책이다. 이 책은 큰 범주로 10가지를 분류한 후에, 각 범주마다 하위 단계 항목을 두어서 그림 자료와 더불어 매우 상세하게 잘 설명을 한 자료이다. 그러나 이 자료는 각 언어의 성서 번역자들의 성서 번역을 돕는다는 또 다른 주된 목적도 있을 뿐만 아니라, 성인들이나 성서 번역가들을 독자층으로 하고 있기에 어린이들이 보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성서공회에서 2008년에 처음 출간한 『바이블 팩트북』은 어린이들을 위해 가장 적절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 자료는 53개의 큰 범주를 설정하고, 각 범주 아래 각각 해당되는 하위 자료들을 설명하였다. 각 범주는 사전처럼 알파벳 순서를 따라 배열되었고, 이로써 어린이 독자들이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쉽게 원하는 부분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책이 취급하는 내용의 범위도 파라곤 출판사의 *Illustrated Family Bible Stories*나 웅진씽크빅의 비주얼박물관 시리즈가 취급하는 범위보다 크며, 그 내용도 비주얼박물관 시리즈 수준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으로 상세하다. 류모세의 시리즈는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서술식으로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다루는 범위의 한계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할 경우 상세한 부분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런 면에서 알파벳 순서로 내용을 배열한 이 책은 상당한 장점을 갖고 있다.

파라곤 출판사의 책이 기탄교육과 웅진씽크빅의 책보다 나은 점은 성경 이야기와 배경 지식 정보들을 연결해서 제시한다는 점인데, 『바이블 팩트북』은 각 설명마다 해당 성경본문을 소개함으로써 이 둘 사이의 중간점에서 타협하였

31) 레이 프리츠, 『성서 속의 물건들』, 김창락 외 공역 (서울: 대한성서공회, 2011).

다. 물론 어린이들이 소개된 해당 본문을 과연 얼마나 찾아보려 할지는 의문이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이 책은 성경 본문 이해를 돕는 자료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였고, 궁금하면 직접 성경을 찾아보도록 유도하여 활동자료로서의 기능도 할 수 있게 하였다.³²⁾

레이 프리츠의 『성서 속의 물건들』이 어린이가 보기에 난해하다면 『바이블 팩트북』은 어린이들의 수준을 많이 배려하여³³⁾ 어린이들이 스스로 성경 본문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자칫 따분할 수 있는³⁴⁾ 성경 배경 지식을 재미있게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들을 마련했는데, 대표적인 예가 “Did You Know?” 항목이다. 예를 들면, 천사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불타는 존재”라는 뜻으로서 하늘을 나는 스랍(세라핌)에 대해 설명하면서 “Did You Know?” 칸을 통해 이스라엘 공군의 공격용 헬기 AH-64D가 바로 스랍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말해주고(5), 이로써 어린이들이 스랍이라는 존재에 대해 연상하여 떠올릴 수 있도록 돕는다.

『바이블 팩트북』은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다른 장치들도 마련했다. 히브리 축제음식 소개에서는 조리법(recipe)을 소개하여 그 음식들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했다(35). 지리(geography)를 다루는 부분에서는 가장 높은 산, 가장 긴 강, 가장 낮은 곳 등 궁금해 할 수 있는 것들을 퀴즈로 내서 어린이들이 관심을 갖도록 한다(88). 이러한 퀴즈는 흥미를 돋우기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어린이들이 얼마나 지식을 습득했는지 확인하는 기능도 한다(37, 191, 226). 그러나 이 확인 과정이 딱딱한 시험 치르기 방식이 아닌 재미있는 퀴즈 풀어보기 식으로 되어 있다. 예를 들면, 다양한 고대 교통수단을 설명하면서 그 수단들을 골고루 이용해서 일정 기간을 여행했을 경우 과연 몇 킬로미터를 갔는지 묻는 퀴즈를 제시하여서(226) 지식 습득 확인과 재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있다.

또한 이 책은 어린이들이 과거의 것을 오늘날 자신들의 삶과 연결시켜 보도록 함으로써 흥미를 유발함과 동시에 자칫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는 고대시대

32) 예를 들면, 11쪽의 악어, 개구리, 물고기, 뱀 등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이러한 동물들이 어떻게 성경과 연결되는지 직접 어린이들이 찾아보도록 하여, 정보전달과 재미있는 활동자료(fun book)의 기능을 동시에 감당하도록 하였다.

33) 어린이들의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쉬운 어휘를 사용하였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뜻을 설명하기도 하며(예: 10쪽의 Donkey 부분에서 비유라는 어휘에 대해 보조 설명 제공), 모든 성경참조에서 약어를 쓰지 않는다. 또한 어린이들이 일상에서 쓰는 표현들(예: 52쪽의 “a big no-no”라든지 “kicked out of the Garden of Eden” 등)을 쓴다.

34) 비주얼박물관 시리즈가 이런 예이다. 비주얼박물관에는 좋은 정보들이 많이 담겨 있지만 다소 딱딱한 정보들을 딱딱하게 “쏟아 붓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에게는 따분한 느낌을 준다. 반면, 기탄문명탐험 시리즈의 경우 이런 점을 극복하는 노력에서 중간에 대화 방식의 이야기들을 삽입하긴 했는데, 정보 지식 제공 부분과 이 부분이 서로 서술 방식에 있어서 상이하기 때문에 도리어 흐름이 단절되는 느낌을 준다.

의 문화를³⁵⁾ 실감해보도록 돕는다. 예를 들면, 천국에 대한 부분을 다룰 때는 오늘날 미국 사람들 가운데서 천국의 존재를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흥미로운 통계를 보여준다(104). 십자가를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과거의 혐오스러운 형틀과 오늘날 액세서리 장신구의 모습을 대조시킨다든지(50), 고대시대에 부모에게 버릇없이 구는 것이 어떤 형벌을 받는지 말하면서 이것과 오늘날 어린이들이 자신의 부모들에게 같은 행동을 하는 모습을 연결해보도록 유도한다(51). 이러한 것은 크리스마스과 부활절을 소개하는 부분에서도 잘 활용되고 있다. 이 책은 세계 각국이 이러한 절기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보내는지 전통이나 관습, 그것들의 유래 등을 상세하게 소개해준다(38-41, 70-75).

『바이블 팩트북』은 단순히 어린이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단계를 넘어서 신앙과 신학적 훈련의 기능을 겸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하나님에 대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성품 등을 설명한다(88-93). 이것은 성령과(124-125) 예수 그리스도(136-141)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단순히 성령이나 예수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지식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성경공부를 시키듯이 신앙교육과 훈련의 방향에서 이 부분을 소개함으로써 교회 교육의 역할도 감당한다. 이 신앙 교육적 차원이 주입식의 신앙 교육 수준을 넘어서 신학적 의미에 대한 설명도 포함함으로써 수준 높은 신학 교육의 역할도 한다. 예를 들면, 대제사장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심도 있게 다룸으로써 히브리서의 신앙과 신학을 어린이들에게 가르친다(207).³⁶⁾

『바이블 팩트북』에서의 신앙과 신학적 교육의 기능은 단순히 지식적인 차원이나 교회 안에서의 교육에 국한하지 않는다.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직업을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다양한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어린이들에게 균형 잡힌 신앙관을 갖도록 이끈다(210). 또한 이삭과 리브가의 자식들을 소개하는 부분에서는 편애(偏愛)하는 것이 어떠한 불행을 낳는지 설명함으로써 단순히 이삭의 가족에 대한 지식적 차원에서 그칠 수 있는 것을 넘어서 신앙인으로서 바람직한 세계관을 갖고 행동을 하는 것의 중요성까지 생각하도록 어린이들을 이끈다(237).

『바이블 팩트북』의 장점은 편집과 디자인적인 차원에서도 돋보인다. 예를 들면, 교통수단을 소개하는 부분에서는 모든 정보를 도로교통 표지판 디자인으로 구성하여서 이미지와 문자정보의 통일성을 이루었다.³⁷⁾ 폰트 디자인에

35) 때로는 오늘날과 연결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과거에는 무엇을 했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 등을 - 예를 들면, 왜 고대 세계에서는 전쟁을 하면 꼭 적군이 섬기는 신상을 빼앗아왔는지(127) 등 - 설명하는 방식으로 어린이들의 궁금증을 해결한다.

36) 비슷한 예로서, 언약의 종류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계약신학에 대한 신학적 설명을 해준다(92).

서도 이런 꼼꼼함이 돋보인다. 예를 들면, 히브리 달력(32), 히브리, 예루살렘 등과 같은 단어는 히브리어처럼 보이는 폰트로 디자인 하였고 아람어라는 단어는 아람어처럼 보이도록 폰트 디자인을 하였다(154-155). 또한 하나님을 소개하는 부분에서는 하나님(GOD)이라는 단어가 몽환적인 분위기가 들도록 빛나게 디자인 하였고, 페이지 전체의 밑그림도 하늘 사진으로 디자인 하였다(88).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도 곳곳에서 엿보인다. 우선 잘못된 정보나 어린이들을 오도할 수 있는 정보의 제공이 발견된다.³⁸⁾ 예를 들면, 바다를 소개하는 부분에서 세계에서 면적이 제일 큰 바다가 지중해라고 설명하는데(86), 그것은 사실 지중해가 아니라 태평양이다. 또한 서기 367년에 아타나시우스가 제시한 신약성경 리스트에 대해 교회가 “yes” 했다고 언급함으로써 마치 이때 신약 27권의 리스트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 같은 인상을 주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³⁹⁾ 아직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을 마치 정설인 것처럼 소개하기도 한다. 바울의 서신들을 소개하는 부분에서 빌레몬서에 대한 해설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 책은 빌레몬서가 주인에게서 도망쳤다가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노예 오네시모를 위해서 바울이 주인 빌레몬에게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쓴 탄원서라고 소개한다.⁴⁰⁾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 해석은 논란의 소지가 다분할 뿐만 아니라, 자칫 이러한 ‘전통’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있는 이데올로기적 편향성까지 어린이들에게 그대로 답습시키는 잘못을 범할 수 있다.⁴¹⁾

37) 질문을 던져서 어린이로 하여금 잠시 멈추어서 생각해보도록 하는 부분은 멈춤 표지판으로 구성한 것이 그 좋은 예이다(222).

38) 오타나 디자인에서의 오류들도 발견된다. 예를 들면, 상형문자 설명을 하는데 상형문자가 아닌 일본어 사진을 사용한다든지(78) 산토끼(hare)를 설명하면서 집토끼(rabbit) 사진을 제공한다(8). “Jesus’ final week”(140) 부분, “that’s why i-n the”(63) 등의 오타도 있고, 동물 설명에 bee, spider 명칭을 빠뜨렸다(12). 또한 이사야의 아들인 Maher-shalal-hash-baz를 두 군데서 언급하는데, 서로 표기와 해석이 다르다(176과 214). 그리고 7대 불가사의의(26-27) 등과 같이 성경 본문 이해와 별로 상관없는 정보도 쓸데없이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하나님을 설명하는 “ABBA”를 “아버지”(father)라고 설명하는데, 이것은 “아빠”(dad)로 했어야 했다(89).

39) 바트 어만, 『성경 왜곡의 역사』, 민경식 역 (서울: 청림출판, 2006), 82.

40) 이런 해석을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 빌레몬서를 분석한 예를 보라. Ernst Wendland, “A Literary (Artistic-Rhetorical) Approach to Biblical Text Analysis and Translation: with Special Reference to Paul’s Letter to Philemon”, 『성경원문연구』 16 (2005), 277-283.

41) 전통적인 빌레몬서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편협한 이데올로기적 해석의 결과이다. 빌레몬서에 대한 전통적 해석은 (1)빌레몬서는 사적 편지이다; (2)오네시모의 주인은 빌레몬이다; (3)오네시모는 도망친 노예였다는 것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논란의 여지가 많다. 첫째, 서두(1-2절)와 마무리(22절 이후) 부분을 미루어볼 때 이 편지는 한 사람이 아닌 교회 공동체에게 보낸 편지이다. 둘째, 2절의 “그대의 집에 모이는”이라는 구절을 미루어볼 때

언급은 하지만 보다 세심하게 보충되어야 할 아쉬운 부분도 있다. 예를 들면, 개(10)나 돼지(11)를 설명할 때 이 동물들이 각각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왕하 8:13; 삼하 16:9; 마 7:6; 막 7: 27-28; 눅 16:21; 빌 3:2; 벧후 2:22; 계 22:15 등)도 설명했어야 했다. 또한 이스라엘 지파들의 위치를 서술식으로 소개하는데, 지도를 함께 제시하여 구체적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했다(121). 예수 시대의 도시를 소개하거나(122) 바울의 전도여행 여정 지도가 없는 점이 아쉽다(188-189). 또한 성막과 성전 구조 소개에서 평면도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다(242). 고난주간에 벌어진 사건들을 소개할 때에 달력에 요일별로 넣는 디자인으로 구성했으면 훨씬 이해가 쉬웠을 것이다(140).

만일 이것을 한국어로 번역하거나 한국에서 이러한 자료를 새롭게 만든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고려되면 좋을 것이다. 첫째, 번역을 한다면 각 항목들을 가,나,다 순으로 할 것인지(전체 목차), 혹은 시대순이나 지역별로 묶을 것인지(예를 들면 178-183의 고대근동 국가들 소개) 고려해야 한다. 둘째, 영화 항목과 음악 항목 사이에 뮤지컬-퍼포먼스 항목도 추가하면 좋을 것이다. 예를 들면, 앤드류 베버의 “Jesus Christ Superstar”, “Joseph the Amazing Technicolor Dream Coat”와 같은 뮤지컬, 조지 발란신의 발레 작품 “탕자” 등을 넣으면 좋을 것이다. 영화 소개 부분에서(168) 2014년 4월에 개봉하는 “노아” 영화 소개도 포함하면 좋을 것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에서 이런 자료를 만든다면 한국적인 것들을 추가하면 좋을 것이다. 예를 들면, 문학 작가 부분(156-159)에 한국의 기독교 작가들을 소개한다든지, 기독교의 여성들 소개에서(214) 한국 여성들을 포함할

가정교회 장소를 제공한 것은 아킵보 부부이며 오네시모는 아킵보의 노예였고, 빌레몬은 단지 이 가정교회의 지도자라고 보아야 한다. 셋째, 빌레몬서 본문 어디에도 오네시모가 도망친 노예였다는 암시는 없다. 신실한 바울의 동역자이자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인 이들에게서 오네시모가 탈출할 이유를 설명하기란 어렵다. 새롭게 빌레몬서를 읽으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된다. 아킵보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는 옥에 갇힌(빌 1:1) 바울에게 시중을 들도록(참고. 빌 2:25-30; 4:18) 오네시모를 파견한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바울의 시중을 드는 동안 바울의 선교 사역에 요긴한 일꾼으로 성장하였고, 바울은 본격적으로 그를 곁에 두면서 사역을 하고 싶었으나, 주인인 아킵보에게 허락을 받아야 했다. 따라서 빌레몬서를 주인의 돈을 훔쳐 달아났다가 우연히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어떻게 이런 기막힌 우연이 있단 말인가!) 회심을 한 오네시모를 다시 돌려보내면서(바울이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한다는 말인가!) 그를 용서하라고 보낸 탄원서가 아니라 아킵보 가정교회에 선교 협조를 구하는 선교 편지이다(이 편지가 사적 편지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보내는 공적 편지임을 기억하라). 특히 바울이 오네시모를 묘사할 때 사용하는 쓸모 있는-없는(ἄχρηστον, εὐχρηστον 1:11)은 딤후 4:11에서 바울이 마가를 선교사역에 유용한 사람이라고 설명하는 곳에서 쓰인 표현과 동일하다. 논증방식은 다르지만 이와 유사한 주장을 쉽게 잘 전개한 것을 보려면 윤철원, “오네시모를 위한 변호”, 『기독교사상』 48/7 (2004), 124-134를 보라.

수 있다. 음악 부분에서는 박동진의 창작 성서판소리 “예수전”, “팔려간 요셉”, “모세전” 등을 소개할 수 있다. 기독교적 이름을 소개하는 부분(177)에서는 1907년 대각성 운동 이후 생겨난 한국 기독교인들의 기독교적 이름으로 개명하는 운동을 소개하면서 초기 한국 기독교인들의 이름에 담긴 기독교적 의미에 대해 소개하면 좋을 것이다.⁴²⁾

성탄절과 부활절 부분에서도 한국적인 것들을 많이 포함시키면 한국 어린이들을 위한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부활절의 세계 각국의 관습을 소개할 때 (70-75) 한국 기독교의 부활절 관습들을 소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부활절 새벽에 여러 교회들이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는 관습, 이 때 여성들이 흰 소복을 입고 새벽예배를 드리던 관습 등을 한국적인 전통 문화와 연결하여 형태와 의미들을 소개한다면 좋은 한국 기독교의 전통에 대한 교육이 될 것이다. 금식을 하거나 초콜릿, 컴퓨터, 게임, 커피 등을 절제하는 사순절 관습들도 소개할 수 있다. 성탄절 관습(40-41)에서도 한국 기독교 전통을 소개하면 좋을 것이다. 예를 들면, 새벽송을 도는 풍습, 이때 연등에 초를 켜서 돌아다니던 관습,⁴³⁾ 중고등부 학생들의 크리스마스이브 선물 교환 풍습, 강림절에 촛불을 매주 하나씩 켜는 풍습, 종이 사슬을 만들어서 하루에 하나씩 떼면서 성탄을 기다리는 풍습 등의 유래와 의미를 소개하면 좋을 것이다.

4. 나가는 말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 어린이들의 성경 읽기를 위한 자료들의 현황을 살펴보고 각각의 장점과 단점들을 조명하였다. 또한 이러한 유형의 자료들 가운데 어린이들을 위한 이러한 취지에 근접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미국성서공회에서 출간한 『바이블 팩트북』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한국 기독교의 어린이들을 위한 성경 읽기 자료 개발을 위한 제언을 하였다. 매우 열악하던 어린이 성경 교육 자료 현황은 최근 들어 상당히 발전하였다. 어린이들의 성경 교육 자료들과 성경 동화나 이야기 자료들이 근래 많이 제작되었으며 이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그러나 홍수에 마실 물을 구하기 어렵듯이 어린이들의 성경 읽기에 도움을 줄 만한 좋은 자료는 사실 그다지 많지 않다. 제대로 된 어린이 성경전서를 찾아 보기 힘들고, 그나마 나온 성경 동화나 만화 등도 본문에서 지적했던 많은 문제

42) 이와 관련한 많은 연구들과 원문 자료를 보려면 영적대각성 100주년 기념학술 연구회, 『각성 갱신 부흥』(서울: 감리교신학대학, 2006)을 참조하라.

43) 이덕주, “초기 한국 토착교회 형성과 토착문화”, 『신학과 세계』 50 (2004), 168-193 (190)을 보라. 이외에도 새벽기도회, 성미(誠米) 등의 한국 기독교의 전통이 있다.

점들을 안고 있다. 게다가 어린이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어야 하는 현실을 받아들일 때, 이런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조적 자료들이 있다면 그나마 좋겠으나, 지금 상황에서는 그다지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이 많이 개발되지 않았다.

기탄문명탐험 시리즈나 비주얼박물관 시리즈, 파라곤 출판사의 자료들, 류모세의 열린다 성경 시리즈, 레이 프리츠의 『성서 속의 물건들』이 이러한 상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들이긴 하지만, 이 자료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한계가 적지 않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미국성서공회에서 출간한 『바이블 팩트북』은 이러한 자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한계들이 극복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어린이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성경을 읽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하고, 어린이의 수준에서 내용이나 편집, 디자인 등이 맞춰져 있기에 어린이들을 위한 좋은 자료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지적했듯이 이 자료 역시 문제점과 아쉬운 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그 부족한 점을 개선할 수 있는 점들을 몇 가지 제안하였다. 특히 한국의 어린이들에게 한국 그리스도인으로서 알아야 할 한국 기독교의 좋은 전통들을 보강하여서 한국의 『바이블 팩트북』을 만들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제안을 통해 한국 그리스도인 어린이들을 위한 자료들이 연구, 개발된다면 한국 기독교를 위한 뜻 깊은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러한 개발 작업은 각 교단의 성서학자, 선교학자, 조직신학자, 역사신학자, 기독교교육학자, 국어학자, 현직 초등 교사들, 목회자, 교회학교 교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일구어 내야 할 과제이다. 내로라 할 자료가 없는 현실 속에서 빠른 시일 내에 좋은 결실이 맺히기를 기대한다.

<주요어>(Keywords)

어린이 성경, 성경 보조 자료, 성경 교육, 바이블 팩트북, 한국 어린이.

Children's Bible, Biblical Resources, Bible Education, *Bible Fact Book for Kids*, Korean Children.

(투고 일자: 2014년 2월 11일, 심사 일자: 2014년 2월 21일, 게재 확정 일자: 2014년 2월 28일)

<참고문헌>(References)

- 강희천, “아동기의 종교 심리와 성경 이해”, 『성경원문연구』 6 (2000), 28-44.
- 김신중, 『과워 바이블』, 서울: 아이세움, 2009.
- 김영봉, “우리의 상황에서 나온 해설 성서가 필요하다”, 『성경원문연구』 9 (2001), 69-78.
- 김희자, “장기적인 학습을 위한 어린이 성경 번역의 선택성과 배제성”, 『성경원문연구』 6 (2000), 53-80.
- 로벨-놀랜, 엘리야, 『노아와 방주』, 박영옥 역, 서울: 성서원, 2000.
- 로벨-놀랜, 엘리야, 『예수님과 아이들』, 박영옥 역, 서울: 성서원, 2000.
- 로벨-놀랜, 엘리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박영옥 역, 서울: 성서원, 2000.
- 류모세, 『어린이를 위한 열린다 성경 1 - 유대 광야에서 예루살렘까지』, 서울: 두란노, 2011.
- 류모세, 『어린이를 위한 열린다 성경 2 - 감람산에서 단까지』, 서울: 두란노, 2012.
- 모리스, N., 『메소포타미아와 성경의 땅』, 김근주 역, 서울: 기탄교육, 2011.
- 뮤세이온, 『미술관이 살아 있다』, 서울: 주니어 아가페, 2013.
- 민영진, “우리말 해설 성서의 현재와 미래적 과제”, 『성경원문연구』 9 (2001), 7-30.
- 박창해, “어린이를 위한 우리말 성경 번역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몇 가지 문제점”, 『성경원문연구』 6 (2000), 155-185.
- 손삼권 정리, “어린이 성경의 번역과 편집의 방향”, 『성경원문연구』 6 (2000), 134-147.
- 손삼권, “성경 읽기의 차원에서 본 어린이 성경 번역”, 『성경원문연구』 6 (2000), 88-104.
- 스미스, 브렌든 파월, 『크리스마스 이야기 - 레고로 만나는 예수 탄생』, 유영소 역, 일산: 도서출판 숲, 2005.
- 스미스, 브렌든 파월, 『하나님 처음 지으신 세상 - 레고로 만나는 창세기』, 유영소 역, 일산: 도서출판 숲, 2005.
- 심정택 외, “지금까지 나온 어린이성경”, 『성경원문연구』 6 (2000), 112-126.
- 싱어, 머프,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이현주 역, 서울: 성서원, 1999.
- 아가페출판사 편, 『쉬운성경』, 서울: 아가페출판사, 2004.
- 양재훈, “기호간 번역과 성서번역 - 문화적 산물을 통한 성서번역의 다양한 방법론 모색”, 『성경원문연구』 24 (2009), 180-200.
- 양재훈, “예술매체를 통한 성서 메시지 전달과 성서번역의 과제 - Siku의 The Manga Bible, NT-Raw를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23 (2008), 146-168.
- 어만, 바트, 『성경 왜곡의 역사』, 민경식 역, 서울: 청림출판, 2006.

- 영적대각성 100주년 기념학술 연구회, 『각성.갱신.부흥』, 서울: 감리교신학대학, 2006.
- 윤철원, “오네시모를 위한 변호”, 『기독교사상』 48:7 (2004), 124-134.
- 이덕주, “초기 한국 토착교회 형성과 토착문화”, 『신학과 세계』 50 (2004), 168-193.
- 임동원, “어린이 성경 번역에 있어서 발췌 본문에 대한 연구”, 『성경원문연구』 6 (2000), 7-27.
- 임미영, “고대 이스라엘 가옥구조 중 *הייל*는 무엇인가?”, 『성경원문연구』 25 (2009), 53-72.
- 전무용, “어린이 성경의 문체 정립을 위한 소고”, 『성경원문연구』 11 (2002), 115-133.
- 전성수, 『हे브루타 그림성경』, 서울: 두란노키즈, 2012.
- 제임스, 시몬, 『고대 로마: 비주얼 박물관 51』, 채수홍 역, 파주: 웅진씽크빅, 1993.
- 콜린, 모이러 맥런, 『우리 아기가 처음 만나는 성경』, 이현주 역, 서울: 성서원, 1999.
- 프리츠, 레이, 『성서 속의 물건들』, 김창락 외 공역, 서울: 대한성서공회, 2011.
- 피어슨, 앤, 『고대 그리스: 비주얼 박물관 50』, 김동광 역, 파주: 웅진씽크빅, 1992.
- 하트, 조지, 『고대 이집트: 비주얼 박물관 49』, 채수홍 역, 파주: 웅진씽크빅, 1993.
- 한영희, 남기영, 『만화로 보는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 2』, 서울: 포이에마, 2011.
- 『Bible Now! 어린이들에게 들려주는 101가지 성경 이야기』, 서울: 대한성서공회, 2005.
- American Bible Society, *The Amazing Bible Fact Book for Kids*, New York: Time for Kids Books, 2008.
- Fitzmyer, Joseph A., *The Acts of the Apostles*, The Anchor Bible 31, New York: Doubleday, 1998.
- Parragon Books, ed., *Illustrated Family Bible Stories*, Bath: Parragon Books, 2008.
- Wendland, Ernst, “A Literary (Artistic-Rhetorical) Approach to Biblical Text Analysis and Translation: with Special Reference to Paul’s Letter to Philemon”, 『성경원문연구』 16 (2005), 266-364.

<Abstract>

**A Survey on Biblical Resources for the Korean Children:
Focusing on *The Amazing Bible Fact Book for Kids***

Prof. Jayhoon Yang
(Hyups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urvey the biblical resources available for Korean children and to make some suggestions for a potential project of producing biblical resources of this kind for Korean children. It begins with recent publications of biblical resources for kids according to their functions and targets. Such publications for kids can be categorized in two groups at large-Bible storybooks and biblical information books. The former is mostly targeting the younger kids and the latter the upper grader kids. These books vary in their styles and reading expectations. Some expect the children readers to have more knowledge of biblical stories, whereas some others to acquire historical or cultural information.

This article pointed out the problem that Korean children do not have an appropriate Bible for their comprehension ability. In this situation, the best answer to this problem for now is to provide them with proper biblical resources, and this article suggested *The Amazing Bible Fact Book for Kids* by the American Bible Society. The book has been thoroughly examined, and its strong and weak points have been provided respectively. It also suggested some tips for the Korean Bible Society to produce biblical resource books, especially for Korean children.